
측두하악장애 증상을 지닌 치과대학생의 교합인자 가족력에 관한 연구

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전공 최현주, 강동완

측두하악장애 증상의 기여인자인 교합요인과 가족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비환자집단인 치과대학생 60명(남자 33명, 여자 27명)과 그 형제자매 94명(남자 45명, 여자 49명), 총 1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측두하악장애의 임상검사시 객관적 증상의 유무에 따라 각각 측두하악장애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한 후 각 군에서 교합검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SAS 에 의한 chi-square test로 통계처리하고, 측두하악장애군의 치과대학생과 그 형제자매간의 교합요소 가족력은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검정법($P=0.05$)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장애군의 치과대학생에서 형제자매의 장애군은 30%, 대조군의 치과대학생에서 형제자매의 장애군은 6.7%로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있는 군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, 대조군의 치과대학생과 형제자매간에는 50.5%-63.7%의 가족력이 있었고, 장애군에서는 40.2%-67.8%의 가족력이 있었다($P=0.05$).
2. 측두하악장애군과 대조군의 형제자매에서 측방운동시 견치유도교합과 군기능교합간에 측두하악 장애의 빈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($P>0.05$).
3. 측두하악장애군과 대조군의 형제자매에서 전방유도시 구치부 접촉 유, 무에 따른 빈도는 각각 33.3%, 22.3%로 차이가 있지만,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($P>0.05$).
4. 전방운동시 치열중심선 변위유무에 대한 조사시 측두하악장애군과 대조군간의 형제자매에서 전체적으로 좌측 변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으며, 특히 여자 형제자매들간의 비교시 두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$P<0.01$).
5. 측방운동시 비작업측의 교합간섭은 측두하악장애군의 형제자매에서 좌, 우 각각 5.6%, 22.2% 로 전체대상의 27.8%이며, 대조군에서는 좌, 우 각각 6.6%, 9.2%로 전체대

상의 15.8%로 장애 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$P>0.05$).

6. 중심교합위에서 치열중심선 일치 여부에 따른 빈도는 측두하악장애군과 대조군의 형제자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$P>0.05$).

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,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발현 빈도는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병력이 있는 군에서 유의성 있게 매우 높게 나타나며,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이 있는 군과 증상이 없는 군의 치과대학생과 그 형제자매간의 교합요소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서로 가족력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측두하악장애는 가족력이 있다고 사료된다.